

민주 “국힘 지도부 친윤 일색 ‘윤석열당’ 으로 재창당”

김기현·김재원·김병민·조수진·태영호...당정 ‘일방통행’ 우려 나경원 중도 사퇴·행정관 김기현 지지 등 대통령실 개입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중심으로 새롭게 출범한 여당 지도부를 겨냥 “친윤(친윤석열) 일색이다”고 비판했다. 또 사실상 대통령실이 여당 전당대회에 개입해 당을 장악했다거나, 국민 여론과 멀어질 것이라는 등의 비판을 쏟아내며 대어 공세를 이어갔다.

윤건영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 대통령의, 윤 대통령에 의한, 윤 대통령을 위한 전당대회”였으며 “대통령 측근, 대통령실 직원까지 나선 ‘역대급’ 전당대회”라고 지적했다.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나경원 전 의원이 친윤계와 대통령실의 견제 끝에 출마를 접고, 전당대회 막판에 대통령실 행정관이 단체 대화방에서 김기현 대표를 지지했다는 의혹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인 최재성 전 의원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공천 개입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비판에 가세했다.

최 전 의원은 “당시 판결문에 ‘헌법의 근본 가치인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침

해했다’는 내용이 있다”며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당시와 똑같이 정당법과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친윤 일색인 탓에 새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실 관계가 다양하게 소통하는 모습이 아닌 ‘일방통행’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민주당 고문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민의힘이) 완전한 ‘윤석열당’으로 재창당했다”고 평가했다.

박 전 원장은 ‘상향식 공천, 탕평인사가 가능한 것으로 보나’라는 물음에 “말로만 그런 것”이라며 “어렵다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에 불거진 김대표의 ‘윤산 땅 투기 의혹’에 대한 공세도 예고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땅 투기 의혹을 비롯해 여러 의혹에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진실을 밝히기 바란다”며 “집권 여당 대표가 투기꾼 의혹 꼬리표를 떼지 못하면 국민 신뢰를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신임 당대표는 물론이고 최고위원(김재원 김병민 조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및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 태영호)과 청년 최고위원(장예찬)도 모두 친윤계로 분류되거나 친윤계를 자처한 인사들로 채워져 ‘친윤 지도부’ 완성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지방평가 라운지

‘배달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정책 토론회

안평환 광주시의원 좌장 맡아

광주시의회 안평환(민주·북구1) 의원은 9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 245 중회의실에서 ‘배달 노동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승희 광주청 소년노동인권센터장은 “배달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안전교육 지원, 거점 쉼터 지원, 법률 지원과 분쟁조정기구 마련, 조직화 지원 등 지지 법규 근거마련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자로 나선 이승남 비정규직 지원센터 대외협력국장은 “배달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전수 조사가 우선되어야 하고, 이를 바



탕으로 기본계획과 지원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창현 라이더유니온 광주 전남지부장은 “안전에 대한 라이더들의 자정작용과 지자체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배달 업체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어야 하는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배달노동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을 앞두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보다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초등돌봄교실 과일 지원 예산 복원하라”

박현숙 전남도의원 임시희 발언

박현숙(더민주·비례) 전남도의원은 8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 369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갖고 “올해 농민축산식품부가 삭감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사업’ 72억원을 신속히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은 도내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 1인당 150g의 조각과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과일은 친환경 경도는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제품이다.

박 의원은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됐던 과일간식 지원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올해는 전혀 없



어 미래 세대를 위한 먹거리 복지가 축소됐다”면서 “정권에 따라 사업이 갑자기 중단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 훼손뿐 아니라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 동력 약화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민들은 정부의 과일간식 지원 예산까지 삭감되면서 다른 판로를 찾아 나서는 등 어려움이 크다”며 “전남도와 교육청은 국비 예산의 조속한 복원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민주 ‘김건희 특검법’ 발의

주가 조작·코바나 협찬 의혹 겨냥...정의당에 러브콜

더불어민주당이 9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특검) 도입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신정훈·양경숙 의원은 이날 오전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법안 발의자로는 신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총 15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이미 지

난해 김 여사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당시 특검법에는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으며, 새로 발의한 법안에서는 주가조작 및 협찬 의혹으로 범위를 좁혔다.

앞서 정의당도 ‘검찰 수사 우선’을 주장하다 지난 7일 방향을 틀어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겨냥한 특별검사(특검) 임명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흥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특검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검찰이 김 여사에게 면

죄부를 줄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라며 “정의당도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이 있는 동안 법사위를 통해 특검법을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잘 알 것”이라며 “신속처리 법안으로 세우는 것과 관련해 앞으로 진행 상황과 내용을 정의당과 협의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안에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특검 후보자 추천을 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발의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민주당에 단독으로 특검 추천권을 부여한 것이다.

정의당이 줄곧 문제를 제기해 온 조항인 만큼, 앞으로 이른바 ‘쌍특검’의 공조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

“한전에너지공대 표적감사 중단하라”

광주·전남 국회의원 공동 성명

감사원이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적법성 감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표적감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신정훈(나주화순) 의원과 광주시당위원장 이병훈(동남읍) 의원, 송갑석(서구갑)·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이용빈(광산갑)·윤영덕(동남갑)·조오섭(북구갑)·이형석(북구을) 의원 등 광주·전남지역 국회

의원들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설립 적법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날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모든 정책을 부정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감사원이 마침내 광주·전남 지역민의 희망이자 수백명 학생들의 배움터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까지 정치감사의 표적으로 삼았다”며 “보수단체의 허술한 청구취지만을 근거로 무리한 감사를 벌이는 것은 그야말로 정권의 입맛에 맞추는 ‘코드감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또 “이번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적법성 감사는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처리 했고 본회의에서도 충분한 토론을 거치는 등 정당한 입법절차를 거쳐 통과된 한국에너지공대 설립과 특별법 제정까지 적법성을 운운한다면 감사원은 국민의 위임을 받은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부정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급변하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표적감사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산업 경쟁력 확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자해행위”라며 “국가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는 ‘자해감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명품매장가맹점모집

(구찌, 버버리, 프라다, 발렌티노 등 약 1,000여개 명품 브랜드 취급)

모집지역

- ▲ 광주(남구, 서구, 광산구)
- ▲ 전북(전주)
- ▲ 전남(여수, 목포, 순천)

운영

- ▲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 ▲ 온, 오프라인 판매 시스템
- ▲ 네이버 및 인터넷 플랫폼 입점 판매중
- ▲ 점주로 입점 가능(기본 급여)
- ▲ 현 본점 매점 성업중
- ▲ 명품샵 투자자 대 모집(수익률 : 년 15% 확정) (담보제공 및 물품제공)

본점

-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용봉 전자 랜드 보짜 옆) 필 명품관

010-2288-0849 / 062-511-0849

봄에 떠나는 그로운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승선문의
061-834-3434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투어나우 : 062-575-8019